

# 책에서 찾는 불황 극복의 묘약

## 경제현실 진단하고 해결책 제시하는 책들 독자 관심 끌며

“미리 터트린 샴페인”, “거품경제의 종말” 등의 수사는 우리 경제가 처한 현실의 심각성을 극명하게 드러낸다. 세계적인 경기침체에 3D기피현상까지 겹쳐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는 경제정책이 대선공약의 상식을 차지할 정도의 최대관심사로 부각되고 있으며, 심지어는 불경기시대의 영업비용 절감과 경영전략 수립을 도와주는 ‘불황산업’이 새 업종으로 호황을 누리는 이변이 속출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역시 불황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서점가에는 불황타개책과 관련된 책들이 이례적인 붐을 이루며, 몇몇권은 10만부 이상씩 판매되는 ‘작은 기적’을 보여준다. 이같은 현상을 반영해 대형서점들도 ‘불황을 이기는 지혜’ 등의 코너를 마련, 관련서들을 한자리에 모아 독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의 경제 경영부문 베스트셀러목록을 살펴보면, 「인맥만들기」, 「W이론을 만들자」, 「경제개혁이 나라를 살린다」, 「시테크」, 「손바닥경제」, 「93신사업」, 「세계경제전쟁」, 「21세기 경제정책의 대전환」 등등.

### 중소기업만 다루는 등 내용 다양

관련서들을 다시 세분화하면, 도산 중소기업과 부실기업의 원인분석 등을 담은 책들과 국가경쟁력과 국제경제 흐름을 조망한 책, 일반적 경영혁신과 전략을 제시한 것 등으로 크게 구분된다. 불황타개를 외치는 이런 종류의 신간들이 쏟아져나오고 읽히는 현상에 대해, 서점가에서는 “이미 지난해 재벌기업가들의 자서전 출판붐이 예고한 것”이라는 공통된 견해를 보이는데, “불황의 물결이 연장되면서 독자들이 좀더 구체적인 책을 원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최근 잇따른 중소기업사장들의 자살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중소기업계의 행편을 짐작케 하는 책들 가운데 「중소기업 판매전략」(기무라 유지/김승룡, 세명서관)은 일본인 컨설턴트의 책으로, 인원과 설비 등에서 제약조건이 많은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는 판매전략의 수립 검토를 성공사례를 중심으로 문답형식에 담고 있다. 일종의 社長學이 내용인 「성공하는 중소기업사장의 조건」(시라이 기요시/정수자, 을지서적)은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초심자들에게 경영합리화와 조직강화 등에 역점을 두라는 조언을 싣고 있다. 또 20년간에 걸친 중소기업 경영컨설팅의 경험을 살려 기업의

회복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우리 경제현실과 관련된

경제·경영서들이 쏟아지는 가운데, 몇몇권은 10만부 이상 판매고를

올리는 이변을 놓고 있다.

부실기업의 원인분석이나 세계경제의 흐름을 전해주는 이런 책들의

저자 또한 경제신문기자·학자·전직관료 등으로 책의 내용만큼이나

다양해 관점을 비교해 볼 수 있다.

체질개선방안을 설명한 신간 「더 좋은 회사를 만드는 경영방법」(히로모토 야수오/경남산업컨설팅, 현암사)에서, 150여업체를 상담한 저자는 “일본의 경우도 경영계획을 수립 실시하는 중소기업이 전체의 15%에 불과하다”면서, 국가경제의 주춧돌인 중소기업의 합리적 경영전략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한편 신문기자가 취재한 중소기업 현장리포트 「전략이 있어야 기업이 산다」(이치구, 사계절)는 15년간 중소기업을 출입했던 기자의 생생한 현장체험이 드러난 책. 이밖에도 「부도예측 예방과 불량채권회사」(삼성재테크) 「기업의 부실 원인과 대책」(한국신용평가) 등은, 7만7천여개에 이르는 중소기업의 활로를 모색하고 있는 책들로 읽힌다.

다음으로는 경기침체의 원인분석과 대책을 제시한 책들이 신간의 대다수를 차지한다. 특히 그 가운데 ‘이익 향상과 코스트다운 실천 기법’을 주제로 한 「불황기의 경영학」은 은행장을 거쳐 현재 한신경제연구소사장직을 맡고 있는 임계수씨의 저서로, 기업부도의 철저한 원인파악과 그 설득력 있는 대안이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저자는 기업과산의 공약수를 시장개방과 국제화의 물결, 그리고 저성장시대 진입과 금융긴축의 역풍에서 찾고 있으며, “최근의 불황은 3년 호황 3년 정체의 연장선상보다는 구조적 요인에 연유하고 있는 게 문제”라고 우려한다. 이어 저자는 “저성장 시대에 맞는 1차적 과업은 원가절감에 의한 이익의 극대화”에 있다”는 결론을 내린다. 우리의 경우를 중점적으로 다룬 이런 책들과 달리 미국과 일본의 예를 보여주는 책도 있다. 「복합불황」(미야자키 요시카즈/양준용, 한국



경기침체를 반영한 경제·경영서 출판붐이 일고 있다.

경제신문사)이 그것으로, 버블 붕괴 후의 경제를 내다본 이 책에서, 교토대학의 명예교수인 저자는 미국과 일본경제를 강타한 ‘블랙 먼데이’를 거품경제의 파열순간으로 보고, 버블경제의 형성과 팽창, 붕괴의 과정을 살펴본다.

불황의 원인과 현상을 분석한 책들과 함께 불황타개를 위한 경영혁신의 방법론을 엮은 책들 역시 독자들의 눈길을 끄는데 「불황을 이겨내는 신기획술」(경영연구팀 엮음, 명진)은 경기침체 현상을 성장계기로 역이용하는 일부 기업들의 남다른 비결이 ‘기획력’에 있다고 단정하고, 창조적·현실적·논리적 사고를 통한 참신한 기획이 불황의 탈출구임을 역설한다. 소설형식에 생산성 향상을 위한 새 시스템을 제안한 책 「병목도 뒤집으면 병목이 아니다」(엘리 골드트/홍성완, 새길)는 미국의 ‘경제 적성국’이 된 일본기업을 이기는 비법을 소설에 담은 특색있는 책.

### 국내외 경제동향 분석서도 많아

한편 「세계의 금융자유화」(사쿠라종합연구소/신한종합연구소, 고려원), 「세계경제전쟁」(레스터 쉐로우/이근창, 고려원), 「1993년 대예측」(주간매경편집실, 매일경제신문사) 등 우리 경제의 문제를 세계적인 현상과 접목시켜 분석하고 조망할 수 있게 하는 책들도 있다. 냉전종식 후 급격한 변화를 겪고 있는 세계경제의 신구도와 질서, 적절한 정부의 역할 등을 통계자료를 곁들여 설명한 「세계경제전쟁」의 저자 쉐로우교수(MIT공대)는 “독일의 기술력과 영국의 자본, 구소련의 첨단과학기술 등이 합쳐진 유럽공동체의 세력”을 세계

경제의 실세로 평가하고 있다.

세계경제의 흐름을 전해주는 책들과 함께 국내 경제정책 개혁에 대한 조언을 담은 책들도 선보이고 있다. 「경제개혁이 나라를 살린다」(문희갑, 행림)는 청와대 경제수석을 지냈던 현직 국회의원의 저서로, 저자는 토지공개념과 금융실명제, 경제력 집중완화, 조세정의 실현을 개혁과제로 설정한 뒤 정부의 일관성 없는 경제정책과 정경유착 등의 부조리 적결을 선결과제로 내세운다. 경제기획원의 요직을 두루 거쳐 현재 산업은행총재로 있는 이형구씨의 「21세기 경제정책의 대전환」(고려원) 역시 불황과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는 국내경제에 대한 우려와 대안제시를 엮은 관료출신의 저서. 해방이후부터 현재에 이르는 우리 경제의 운영실적에 대한 평가와 개방화 시대에 대비한 새 경제정책의 예를 들고 있다.

최근 도서출판 사계절에서 펴낸 두권의 책 「손바닥경제」(박원배·마끼노 노보루)와 「경제기사 소프트」(곽해선)는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읽을 수 있는 초보자용 경제서와 신문의 경제기사를 해독할 수 있는 요령을 알려주는 책. 특히 「손바닥경제」는 경제상식에서 국내외 동향에 이르는 현안문제를 5개장 89항목으로 나눈 책인데, 일본의 경제평론가와 서울경제신문사 기자가 현장체험에 의거해 문답식으로 궁금증을 풀어준다. 이상의 불황타개를 외치는 경제·경영서들은 한결같이 “위기는 리스크와 찬스를 동시에 동반한다”는 경제 교훈에 입각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최태원 기자